

우리말 성서 번역에서 대응어 선택의 문제 : 홀(笏)과 규(圭)

류호성*

1. 머리말

외국 문헌을 우리 나라 말로 번역하는 작업이 힘들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고전이 되어 버린 문헌을 번역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이다.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번역자가 원문과 번역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나 식견을 지니고 있어 일반 독자에게 원문의 뜻을 번역어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더구나 성서처럼 한 언어공동체 전체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책일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성서를 번역하는 일은 조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서양의 문헌이나 조각상 또는 의례적인 행사에서 신들이나 왕들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손에 쥐고 있는 짧은 지휘봉 혹은 긴 지팡이처럼 생긴 물건을 본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scepter(sceptre)’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을 홀(笏)¹⁾이라고 번역해 왔다.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61, 이하 「개역」)에는 ‘홀(笏)’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8회, 신약에 2회 도합 20회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말 대응어 ‘홀(笏)’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대응어가 아니어서, 영어 ‘scepter’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scepter’의 의미가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었고, 그 의미에 맞는 적절한 대응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2. ‘Scepter’의 개념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신약학 전공

서양에서 ‘scepter’¹⁾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기 위해, 먼저 사전이 풀이한 뜻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1. 「웹스터 영어 사전」²⁾

(1) a rod or staff, highly ornamented, held by rulers on ceremonial occasions as a symbol of sovereignty.

주권의 상징으로 공식적인 의식에 통치자들이 휴대하고 있는 아주 정교하게 장식된 막대기 또는 지팡이.

(2) royal or imperial authority; sovereignty.

왕실이나 황실의 권위 또는 주권.

2.2. 「옥스퍼드 영어 사전」³⁾

(1) An ornamental rod or wand (often of gold and jewelled) borne in the hand as a symbol of regal or imperial authority.

왕이나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손에 쥐고 있는 장식 달린(종종 금이나 보석) 막대기나 지팡이.

(2) Taken as the power or authority symbolized by a sceptre; hence, royal or imperial dignity, sovereignty, supremacy.

‘sceptre’를 소유하는 것은 힘이나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상징. 그러므로 왕실이나 황실의 위엄, 권위, 주권.

이상에서 보듯이 ‘scepter’는 (1) 왕 또는 황제가 그들의 통치 권력이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손에 쥐고 있는 물건, (2) 막대기나 지팡이의 모양으로 길이는 길거나 짧으며 둥근 형태를 하고 있다. ‘scepter’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팡이 모양의 긴 ‘scepter’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부조(浮彫)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위 부분에는 장식이 달린 것으로

1) 이 글에서는 ‘scepter’를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2) ‘scepter,’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edited by Victoria E. Neufeldt (New York: Webster’s New World, 3rd, 1988).

3) ‘sceptre,’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edited by J. A. Simpson & E. S. C. Weiner (Oxford: Clarendon press, 3rd, 1988).

길고 가늘며, 이것은 오른손으로 쥐어져 있으며, 그 밑이 왕의 두 발 사이 마룻바닥에 놓여 있다.⁴⁾ 또한 짧은 모양의 ‘scepter’는 아시리아 에살하돈의 부조에 나타나며, 바다에 뜬 배 모양의 8-10cm 되는 돌 머리에 짧은 손잡이가 달린 전투용철퇴(戰鬪用鐵褪)인 군사적 장비로 양식화되어 있다.⁵⁾ 긴 것은 왕의 권세를 상징한 것이며, 짧은 것은 왕의 군사적 통치력을 상징한 것으로서 전투에 사용되었다.⁶⁾ 헤롯 왕도 ‘scepter’를 사용하였다. 이는 ‘헤롯이 죽자 그의 관은 온통 금으로 입혀지고 보석들로 장식되었으며, 머리에는 왕관이 쓰여졌고, 오른손 옆에는 ‘scepter’가 놓였다’는 요셉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⁷⁾ ‘scepter’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았다. 카롤링거 왕조의 왕들은 처음에는 긴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로마의 단장을 모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10세기부터 왕을 축성(祝聖)하는 데 두 종류의 지팡이가 이용되었다. 대다수 나라에서는 두 개의 지팡이 중, 하나는 고대에 질서정연한 우주를 표상 했던 구형(求刑)의 십자가가 달린 보주(寶珠)로 대체되었다.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두 개의 지팡이가 사용되었는데, 점차 지팡이의 길이는 비슷해지고 맨 위에 세워 놓은 십자가와 비둘기 모양으로 구별되었다.⁸⁾

‘scepter’는 지상의 통치자의 통치권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다. 하만은 바벨론 포로의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것을 안 왕후 에스텔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당신의 ‘scepter’를 넘겨주지 마소서”⁹⁾ 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린다. 에스텔은 하나님의 주권을 ‘scepter’에 비유한다. 이처럼 ‘scepter’는 하느님의 통치권뿐만 아니라 왕의 권력이나 군사적인 힘을 상징한다.

4) ‘홀 笏 Scepter’, 민영진 편집, 「성서백과대사전」 제12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9), 494쪽.

5) ‘홀 (笏 Scepter)’, 민영진 편집, 「성서백과대사전」

6) ‘Scepter,’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edited by W. A. Elwell, Vol. 2,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p.1913.

7) Josephus, *Jewish War*, I, 670-673, (tran.), J. Thackera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Jewish Antiquities*, XVii, 195-199. 요셉푸스는 ‘scepter’를 뜻하는 ‘σκηπτρον’ 단어를 사용했다.

8) ‘홀 scepter,’ 「브래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제25권 (서울: 브래태니커 & 동아일보, 1994), 324쪽.

9) 「공동번역 성서」 에스텔 14:11. 여기서는 ‘홀’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논의를 위해 영어 단어를 쓴다.

3. 홀(笏)

우리말 「개역」은 영어의 ‘scepter’를 ‘홀(笏)’이라고 번역하였다. ‘홀’이라는 말은 오늘날 일상 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 독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나라에서 출판되는 여러 종류의 「한영사전」이 이 말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성서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뜻을 좀 더 진지하게 파악하려는 독자들은 사전을 찾아볼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국어사전」이나 「영한사전」에서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겪게 된다. 영어의 ‘scepter’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그러나 우리말 ‘홀’은 신하가 갖추는 물건이지 왕이 지니는 통치권의 상징물이 아니다.

「영한사전」에서는 ‘scepter’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왕권의 표상으로서 손에 쥐는) 홀(笏), (2) 왕권, 왕위, 주권, (3) 왕권을 주다, 왕위에 앉히다[오르게 하다].”¹⁰⁾

“왕권의 상징으로 임금이 갖는 홀(笏).”¹¹⁾

“(제왕의) 홀(笏), 왕권, 왕위, 주권.”¹²⁾

“(1) (제왕의 상징으로서의) 홀(笏), 권장(權杖), (2) 왕권, 왕위, 주권.”¹³⁾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영한 사전들이 ‘scepter’를 왕권이나 제왕의 상징인 ‘홀(笏)’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scepter’를 ‘홀(笏)’이라고 알고 있다. 영어의 ‘scepter’와 같은 의미의 독일어 단어는 ‘zepter’이다. 독일어 사전들은 ‘왕홀(王笏), 왕위,¹⁴⁾ 왕홀(王笏),¹⁵⁾ 왕홀(王

10) 시사영어사 편, 「시사영어사/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1991).

11) 시사영어사 편집국 편, 「엘리트 영한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1991).

12) 민중서림 편집국 편, 「엡센스 영한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7).

13) 두산동아 사전편찬실 편, 「프라임 영한사전」 (서울: 두산 동아, 1997).

14) 지명렬 편저, 「동아 프라임 독한 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1).

笏)(왕이 의관 정제하고 오른손에 쥐는 가늘고 긴 물건),¹⁶⁾ ‘홀(笏):zepter’¹⁷⁾로 설명한다. 「독한사전」은 ‘왕(王)’과 ‘홀(笏)’을 합성하였다.

「국어사전」들은 ‘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에 나오는 의미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러 종류의 「국어사전」은 ‘홀’이라는 단어를, 영어의 ‘scepter’와는 달리 설명하고 있다. ‘홀’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홀(笏): 조선 왕조시대, 벼슬아치가 조현할 때에 조복에 갖추어 손에 쥐는 물건. 길이 한 자 가량, 넓이 두 치 가량이며 알팍하고 길쭉이 되었고, 그 신분에 따라 일품부터 사품까지의 벼슬아치는 상아, 오편 이하는 나무로 만들.”¹⁸⁾

“홀(笏): 조선 시대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조복(朝服)에 갖추어 손에 쥐던 물건. 신분에 따라 1품부터 4품까지는 상아홀(象牙笏), 5품 이하는 목홀(木笏)을 사용했음.”¹⁹⁾

“홀(笏): 왕조 때, 벼슬아치가 조현(朝見)할 때 조복(朝服)에 갖추어 손에 쥐던 패.”²⁰⁾

“홀(笏): 벼슬아치가 조복을 입고 조현할 때 오른손에 갖추어 쥐던 패”²¹⁾

“홀(笏): 벼슬아치가 왕을 뵈는 때 조복에 갖추어 쥐는 물건. 신분에 따라 상아나 나무로 만들었다.”²²⁾

“홀(笏): 봉건사회에서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 손에 쥐는 물건. 약 한자 넓이의 길쭉하고 알팍한 물건인데 1품으로부터 4품까

15) 허형근 편저, 「옛센스 독한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7).

16) 「현대독한사전」 (서울: 교학사, 1997).

17) 한국독어독문학회 편, 「옛센스 한독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8).

18)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1).

19) 김민수 감수, 「그랜드 국어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8).

20) 이기문 감수,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5).

21) 양주동 감수, 「새국어대사전」 (서울: 신한출판사, 1972).

22) 한국학회 지음,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어문각, 1991).

지는 상아로, 5품 아래는 나무로 만들었다.”²³⁾

우리 나라에서 ‘홀(笏)’의 개념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직에 있는 자가 임금을 만날 때 손에 쥐는 것으로, 1-4품까지는 조복(朝服), 제복(祭服), 공복(公服)에는 상아로 만든 홀을 사용하고, 5-9품까지는 나무로 만든 홀을 사용한다. 조선 시대 홀의 모양은 약간 굽은 것으로 33cm 정도의 장판(長板)에 너비는 아래가 5cm, 위가 3.5cm 정도였고 밑부분의 손으로 잡는 데는 비단으로 썼다.²⁴⁾ 홀이 사용된 그 용도에 대해서는 「예기(禮記)」 옥조(玉藻)편에 잘 나타나 있다.

“將適公所 宿濟戒居外寢沐浴 史進象笏 書思對 命. 대부가 장차 공소(公所)에 입조하려 할 때는 하룻밤 전에 재계하고 외침에서 목욕한다. 사(史)가 상홀(象笏)을 올리면 사(思), 대(對), 명(命)을 홀에 써서 만일의 유망(遺忘)에 대비한다.”²⁵⁾

“見於天子與射無說笏 --- 凡有指畫於君前用笏 造受命於君前則書於笏 笏畢用也 因飾焉. 천자를 뵈 때, 대사(大射)와 향사(鄉射) 등 경례(敬禮)를 위주로 할 때는 홀을 놓지 않는다. --- 무릇 군전에서 어떤 일을 말하고 지시할 때는 홀을 사용하고, 군전에 이르러 명을 받을 때는 홀에다 기록한다. 홀은 모든 일에 사용됨으로 장식을 하는 것이다.”²⁶⁾

‘홀’이 처음 만들어진 목적은 예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직에 있는 자가 천자(天子)를 알현할 때 미리 알릴 것을 기록하거나, 천자가 명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홀의 이러한 실용적인 면은 사라지고 점차 형식적으로 변하여 하나의 의례용이 되었다. 즉 천자에 대한 예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우리 나라가 ‘홀’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나²⁷⁾, 신라가 당

23)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4) 김동욱, “홀(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5권(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58쪽. 그러나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28권(서울: 두산동아, 1996) 277쪽에는 ‘홀의 길이는 약 60cm, 너비 약 6cm’라고 말한다.

25) 「예기(禮記)」 옥조(玉藻) 제13, 권오돈 주해 (서울: 홍신문화사, 1996), 279쪽.

26) 「예기(禮記)」 옥조(玉藻), 권오돈 주해 (서울: 홍신문화사, 1996), 287쪽.

27) 김동욱, ‘홀(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5권, 58쪽에는 “백제 고이왕 대

나라와 교류하면서 당제(唐制)의 관복을 입은 뒤로부터²⁸⁾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의 잡지(雜志) 제2편에 실려 있다.

“法興王制，自太大角干至大阿滄紫衣，阿滄至級滄緋衣，並牙笏，大奈麻 奈麻青衣，大舍至先沮知黃衣. 법흥왕(法興王) 때의 제령(制令)에는 태대각간(太大角干)에서 대아찬(大阿滄: 5등급)까지는 자의(紫衣: 紫色옷)요, 아찬(阿滄: 6등급)에서 급찬(級滄: 9등급)까지는 비의(緋衣: 붉은 옷)로 모두 아홀(牙笏)을 가졌다. 그리고 대내마(大奈麻: 10등급) 내마(奈麻: 11등급)는 청의(青衣: 푸른 옷)요, 대사(大舍: 12등급)에서 선저지(先沮知: 一云 造位泥 17등급)까지는 황의(黃衣)이었다.”²⁹⁾

신라 시대에는 1등급의 태대각간부터 9등급의 급찬까지 모두 같은 재질의 아홀을 지녔고,³⁰⁾ 옷의 색깔로서 그 신분을 구분하였다. 신라 시대에는 목홀은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나라가 목홀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멸망한 고구려의 옛 영토를 중심으로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 시대부터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고려 시대 유득공이 지은 「발해고(渤海考)」에 나타난다.

“이 관리(官吏)의, 의장(儀章)을 보면, 이에는 9품의 품질(品秩)이 있어 이를 사등(四等)으로 구분하여, 삼품 이상의 관리는 자색(紫色)의 관복(官服)에다 아홀(牙笏)을 쥐고 금어대(金魚袋)를 찼으며, 4품과 5품은 비색(緋色)의 관복에다 아홀(牙笏)을 쥐고 금어대(金魚袋)를 찼고, 6품과 7품은 천비색(淺緋色) 관복에다 목홀(木笏)을 쥐었으며, 8품과 9품은 녹색(綠色)의 관복에다 목홀(木笏)을 쥐었다.”³¹⁾

에 4색공복(四色公服)을 제정하고 아홀(牙笏)이 있었다고 하나 믿기는 어렵다”고 한다.

28) 우리 나라가 중국의 의복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진덕왕(眞德王) 2년에 김춘추(金春秋: 太宗武烈王)가 당(唐)나라에 들어가, 당나라 의식에 따를 것을 청하니, 현종(玄宗) 황제가 허락하여, 돌아와 이를 시행하였다’는 「삼국사기」 권 제33 잡지(雜志) 제2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김부식 저 /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下) (서울: 을유문화사, 1996), 189-203쪽을 참조.

29) 김부식 저 /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下), 190쪽.

30) 신분상의 차이에 따라 홀의 길이가 각각 다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31) 유득공, 「渤海考」, 渤海國誌, 新唐書 渤海條, 류희경, 「한국복식사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97쪽에서 재인용.

발해는 1품부터 9품까지를 4등으로 구분하여, 1품부터 5품까지는 아홀을 사용했으며, 6품부터 9품까지는 녹색의 관복에 목홀을 사용하였다. 고려 초는 이와 약간은 달랐다. 1품부터 6품까지는 상홀(象笏)을 사용하였고 녹의(綠衣)를 입은 7품부터 9품까지는 목홀을 사용하였다.³²⁾ 그러나 고려 말 공민왕 21년 11월 교지(教旨)에는 ‘동서반(東西班) 오품 이하는 목홀(木笏), 각대(角帶)에 주저(紬紵)로 한 조복을 착용하라’고 하였다.³³⁾ 이때부터 5품 이하도 목홀을 사용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 말기와 마찬가지로 1품부터 4품까지는 상홀을 사용하였고, 5품부터 9품까지는 목홀을 사용하였다.

영어의 ‘scepter’를 우리말 ‘홀’로 번역하는 것은 그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인 신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scepter’는 왕이나 황제가 사용하는 것의 명칭이나, 홀은 통치자가 아닌 그 아래 계층의 신분을 가진 신하들이 사용하는 것의 명칭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scepter’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다. 사회적 신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홀을 수식하는 ‘왕이나 제왕의’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하거나 독일어 사전(zepter)처럼 ‘왕홀(王笏)’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중국이나 우리 나라에서 ‘scepter’의 의미를 설명할 단어가 없으면 ‘왕홀’이니 ‘제왕의 홀’이니 하는 것도 그리 잘못된 번역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나 우리 나라에서도 왕이나 황제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명칭이 있다. 그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애써 그 의미에 가깝게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다.

4. 규(圭)³⁴⁾

32) 류희경, 「한국복식사연구」, 182-183쪽을 참조.

33) 高麗史, 志卷第二十六 輿服, 류희경, 「한국복식사연구」, 180쪽, 재인용. 고려 시대의 홀의 길이는 송제(宋制)를 따라 일척 이촌(一尺二寸)이나 되는 것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류희경, 「한국복식사연구」, 185쪽을 참조.

34) 우리 나라에서 나온 여러 국어사전에서 ‘규’를 찾아보면 그 설명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필자로서는 ‘규’의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규(圭): 옥(玉)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위가 삼각형으로 끝은 뾰족하며 그 아래는 직사각형의 형태이다. 옛날 중국에서 천자(天子)가 제후를 봉하거나 신을 모실 때 썼고, 우리 나라도 조선시대 에 왕이 제례(祭禮)에 면복(冕服)을 입고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천자(天子)라 부른다. 서양과 마찬가지로 천자는 제례나 의례 때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상징적인 물건을 사용한다. 이 물건의 명칭에 대해서는 「예기(禮記)」의 옥조(玉藻)편에 잘 드러나 있다.

“天子搢珽 方正於天下也 諸侯茶 前詘後直 讓於天子也 大夫傳詘後詘 無所不讓也. 천자는 정을 꽂는데 천하를 방정하게 하기 위해서다. 제후는 도를 꽂는다. 그 모양은 앞이 둥글고 뒤는 방정한데 이는 천자에게 겸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의 홀은 상아를 모두 깎아서 둥글게 만드는데 이는 겸양하지 않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³⁵⁾

“천자가 사용하는 이 물건의 명칭은 ‘정(珽)’이다. ‘정’을 일명 ‘대규(大圭)’라고 하며, 길이 석 자로 방직(方直)하여 구부러지지 않는다. 꼭대기의 4치는 망치의 머리 비슷한데 이를 종규수(終葵首)라고 한다. 나머지 길이는 대개는 2자 6치인데 그것을 ‘정’이라 하며, 이는 꺾꺾하여 굴하는 일이 없다는 데서 취한 것이다. 제후가 사용하는 이 물건의 명칭은 ‘도(茶)’이다. 그 길이는 2자 6치로, 머리는 둥글게 깎였고 아래쪽은 방정하다. 도(茶)란 서지(舒遲:여유가 있고 침착한 것)의 뜻으로, 앞에 황공한 것이 있게 되면 그 나아가는 것도 서지이기 마련이다. 제후는 위에 천자가 있으므로 머리 부분을 둥글게 깎아 겸양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대부(大夫) 이하는 모두 ‘홀’이라고 부르며, 죽홀(竹笏)을 사용하며, 상하를 모두 둥글게 한다. 이 까닭은 위에 천자와 자기 임금이 있기 때문에 모두 겸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³⁶⁾

천자가 사용하는 것은 ‘정’ 혹은 ‘대규’라고 부르며, 제후가 사용하는 것은 ‘도’라고 부르고, 대부가 사용하는 것은 ‘홀’이라고 부른다.³⁷⁾ 신분에

35) 「예기(禮記)」 옥조(玉藻) 제13, 279쪽.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이 「순자(筍子)」의 대략(大略)편에도 나온다: “天子御珽 諸侯御茶 大夫服笏 禮也.”

36) 「예기(禮記)」 옥조(玉藻) 제13, 279쪽.

37) 일반적으로 ‘정’ ‘대규’ ‘규’ ‘도’ ‘홀’을 통칭으로 ‘홀’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홀’이라는 하위 개념을 가지고 전체를 포괄하다 보니 상위 개념인 ‘정’ ‘대규’ ‘규’ ‘도’는 그 의미가 축소되며, 또한 각각의 사용 용도, 모양, 재질에 있어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범주 설정은 ‘홀’이 ‘홀’ 자체를 개념 규정하는

따라서 그 명칭과 재질이 분명히 구분되었다.

“천자는 ‘대규’ 이외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진규(鎭圭)이다. 천자 즉 황제가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낼 때 대구면(大裘冕)에 대구를 꿰고 진규를 들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명대에 와서 면복으로 대구면을 대신하게 되면서 대구의 제는 없어졌다. 대구(大圭)의 예(禮)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제후가 도를 꿰는 예도 없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진규’는 규라고도 하여 위가 삼각형으로 된 직사각형의 옥판에 사방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에서 사진(四鎭)의 산(山)으로써 탁식(琢式)하고, 길이 한 자 두 치로 밑을 황기(黃綺)로 맺고 황기낭(黃綺囊)에 도장(韜蔣)하였다. 명대에 와서는 황제의 면복에 규는 그대로였으나, 피면복(皮弁服)에서 규는 산형 아닌 쌍식문(雙植文)을 등마루에 하고 황기낭에는 금룡문(金龍文)이 있었다. 그리고 금(鎛)으로 밑을 맺고는 금낭에 넣은 동형의 무문(無文) 규를 사용하였다. 규는 그 종류가 많이 있다. 공작(公爵)에게는 환규(桓圭), 후작(侯爵)에는 신규(信圭), 백작(伯爵)에게는 궁규(躬圭), 자작(子爵)에게는 곡벽(穀璧), 남작(男爵)에게는 포벽(蒲璧)이 있었다. 신분에 따라 규의 명칭이 다르듯이 그 길이도 각각 달랐다. 황태자의 것은 길이 9치 5푼, 친왕(親王)의 것은 길이 9치 2푼 5리, 세자, 군왕의 것은 길이 9치로 하였다. 환규는 그 재질이 진규와 같았으며 이에는 환(桓)을 쌍식(雙植)으로 표시하여 탁식하였으며, 환은 궁실 의상으로, 이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며, 길이는 9치였다. 신규와 궁규도 그 재질은 진규와 같았으며 이에는 인형(人形)을 탁식하고 문양이 추옥(麤縟)하였는데, 모두 길이 7치로서 행실을 삼가며 써서 보신한다는 뜻이다. 곡벽과 포벽은 지름 5치의 원형으로 된 것으로, 곡벽에는 곡식의 줄기와 이삭을 새겨 사람을 기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포벽에는 부들을 탁식하였는데, 부들은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 여복(女服)에도 규가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황후(皇后), 황비(皇妃), 황빈(皇嬪), 황태자비(皇太子妃), 친왕비(親王妃), 세자비(世子妃), 군왕

모순을 지니고 있다. ‘scepter’의 대응어로 ‘정(璽)’ 혹은 ‘대규(大圭)’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명나라에 와서 ‘대규’의 예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 혹은 ‘대규’의 용어들은 그 의미를 점차 잃어 버렸다. 둘째, ‘정’과 ‘대규’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왕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비(郡王妃)들의 예복에 길이 7치의 옥곡규(玉穀圭)를 소지하였다”.³⁸⁾

규는 천자가 제례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후를 임명할 때 사용하였다. 규는 흙토(土)자 2개를 겹친 것으로 영토(領土)와 영토의 경계, 곧 제후로 책봉되어 천자로부터 받은 땅을 재고 다스린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다.³⁹⁾ 우리 나라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규’를 받는 국가였기 때문에 최고의 통치자에게 천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아래 단계인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우리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면복과 더불어 규를 받았지만 고려 초의 제도는 알 수 없고⁴⁰⁾, 공민왕 때 명나라로부터 받은 규는 그 길이가 9치였다.⁴¹⁾ 조선 시대에도 태종 이후 수차례에 걸쳐 명나라로부터 고려 시대에 공민왕이 받은 것과 같은 것을 받았다. 규의 길이는 9치, 너비 3치, 염수(炎首) 1치 5푼의 청옥규를 길례(吉禮)에 소지하였으며, 가례(嘉禮)에는 같은 크기의 백옥규를 소지하였으며, 왕세자, 왕세손은 길이 7치, 너비 3치, 염수 1치 5푼의 청옥규를 들었다.⁴²⁾

그러나 고종이 국가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며, 왕이라는 칭호 대신에 황제로 그 칭호를 바꾸면서 명나라 황제와 같은 1척 2촌의 백옥규를 사용하였다. 이 때의 규는 진규로서 위 끝이 뾰족하고 곁에는 산형(山形) 4개를 조각하였으며 밑을 황기(黃綺)로 묶었다.⁴³⁾ 그리고 황태자 역시 중국 황태자와 동격인 길이 9치 5푼의 것을 들었으며, 친왕은 길이 7치의 규였다.⁴⁴⁾

우리 나라에서 왕들은 고려 시대부터 제례나 의례 때 규를 사용하였다. 신분제도가 엄격한 왕조시대에는 왕의 신체나 왕이 사용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분과 그 명칭이 있었으며, 신하 이하 일반 서민들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의 강력한 법규로, 이를 어기는 자는 그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scepter’의 대응어는 ‘홀’이 아닌 ‘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scepter’를 ‘홀’로 이해하는 것은 영어의 ‘father’를 ‘삼촌’ 또는 ‘(나를 낳아 준) 삼촌’

38) 류희경, ‘규(圭),’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4권(서울: 두산동아, 1996), 316쪽.

39) 두산동아 사전편찬실, ‘규,’ 『동아새漢韓辭典』(서울: 두산동아, 1998).

40) 고려 11대 문종(文宗)이 중국으로부터 ‘관복규(冠服圭)’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서 왕이 제례(祭禮)시에 제복(祭服) 즉 면복(冕服: 왕이 면류관을 쓰면서 입는 복장)을 입고 규(圭)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류희경, 『한국복식사연구』, 139, 143쪽을 참조.

41) 김동욱, ‘규 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4권, 31쪽.

42) 류희경, ‘규(圭),’ 『두산세계대백과사전』

43) 김동욱, ‘규(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4) 류희경, ‘규(圭),’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으로 번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⁴⁵⁾

5. 성서에서 ‘scepter’

일제 침략기 당시 우리말 번역 성서는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을 일깨워 독립운동을 고취시켰으며, 한글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성서의 언어가 그 만큼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성서의 언어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그 영향을 주었다. ‘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cepter’의 대응어는 ‘홀’이 아니라 ‘규’이다. 그러나 초창기의 성서 번역자들은 ‘scepter’의 대응어를 ‘홀’로 번역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까지도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개역」에는 ‘홀’이라는 단어가 총 20회 쓰였다. 이것은 히브리어 ‘טַבַּשׁ,⁴⁶⁾ פַּרְמַח,⁴⁷⁾ מַטֵּה⁴⁸⁾와 그리스어 ‘ράβδος’⁴⁹⁾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에 대해 우리 성서는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개역」을 중심으로, 다른 번역 성서 즉 「성경전서」(1911, 이하 「구역」), 「공동번역 성서」(1977, 이하 「공동번역」),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 이하 「표준새번역」) 그리고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7, 이하 「개역개정판」)과 비교해 보자.⁵⁰⁾

5.1. 창세기 49장 10절

“홀(טַבַּשׁ)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פַּרְמַח)’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길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45) ‘scepter’와 ‘규’의 차이점은, 그 모양으로 볼 때, ‘scepter’는 짧거나 긴 둥근 지팡이 모양이지만, ‘규’는 위가 삼각형으로 끝은 뾰족하며 그 아래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46) 창49:10; 민24:17; 시45:6; 사14:5; 겔19:11, 19:14, 21:10, 21:13; 암1:5, 8; 숙10:11.

47) 민21:18; 시60:7, 108:8.

48) 시110:2.

49) 히1:8. 신약에는 ‘ράβδος’가 히1:8을 포함하여 12번 쓰였다. 「개역」 마10:10, 막6:8, 눅9:3, 히9:4, 11:21, 계11:1은 ‘지팡이’로, 고전4:21은 ‘매’로, 계2:27, 12:5, 19:15은 ‘철장’으로 번역하였다. 신약성서는 지팡이를 뜻하는 단어로는 ‘ράβδος’만 쓰였으나 요셉푸스는 ‘βακτηρία’ ‘σκηπτρον’ ‘ράβδος’ ‘ξύλον’ ‘λυνος’ 등 다양한 단어를 사용했다.

50) 여기에서는 한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보다 단어에만 관심을 둔다.

「구역」과 「개역개정판」은 ‘홀’로, 「공동번역」은 ‘왕의 지팡이’로, 「표준새번역」은 ‘임금의 지휘봉’으로 번역하였다.

5.2. 민수기 21장 18절

“이 우물은 족장들이 뿔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קקממ)’과 ‘지팡이(ממשננ)’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구역」,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그리고 「개역개정판」 모두 ‘홀’로 번역하였다.

5.3.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טטש)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구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은 ‘홀’로, 「공동번역」은 ‘왕권’으로 번역하였다.

5.4.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טטש)은 공평한 홀(טטש)이니이다.”

「구역」, 「표준새번역」 그리고 「개역개정판」은 두 곳 모두 ‘홀’로, 「공동번역」은 모두 ‘왕권’으로 번역하였다.

5.5. 시편 60편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פּוֹרַן)이며.”

「구역」은 ‘법을 세우는자’로, 「공동번역」은 ‘지휘봉’으로,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판」은 ‘홀’로 번역하였다.

5.6. 시편 108편 8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פּוֹרַן)이며.”

「구역」은 ‘법을 세우는자’로, 「공동번역」은 ‘지휘봉’으로,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판」은 ‘홀’로 번역하였다.

5.7. 시편 110편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מַטֵּה)을 내어 보내시리
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구역」은 ‘주의 권능’만 해석하였으며, 「공동번역」은 ‘왕장’으로,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판」은 ‘홀’로 번역하였다.

5.8. 이사야 14장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מַטֵּה)와 패권자의 홀(מַטֵּה)을 꺾으셨
도다.”

「구역」은 ‘권병’으로, 「공동번역」은 ‘지팡이’로,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판」은 ‘홀’로 번역하였다.

5.9. 에스겔 19장 11절

“그 가지들은 건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מַטֵּה)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

어나서 보이다가.”

「구역」, 「표준새번역」 그리고 「개역개정판」은 ‘홀’로, 「공동번역」은 ‘지팡이’로 번역하였다.

5.10. 에스겔 19장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טבש)이 될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구역」, 「표준새번역」 그리고 「개역개정판」은 ‘홀’로, 「공동번역」은 ‘지팡이’로 번역하였다.

5.11. 에스겔 21장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 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טבש)이 모든 나무를 엽신여기는 도다.”

「구역」과 「개역개정판」은 ‘홀’로 번역하였다.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은 「개역」의 내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scepter’가 해석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scepter’를 번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왜냐하면 ‘scepter’를 상징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5.12. 에스겔 21장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엽신여기는 홀(טבש)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구역」과 「개역개정판」은 ‘홀’로 번역하였다.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은 「개역」의 내용과 많이 달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공동번역」은 ‘권력’으로 해석했다 볼 수 있다.

5.13. 아모스 1장 5절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면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벤에단에서 홀(חֹ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
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구역」과 「개역개정판」은 ‘홀’로,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은 ‘왕권’으
로 번역하였다.

5.14. 아모스 1장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חֹל)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 있는 자가 멸
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구역」과 「개역개정판」은 ‘홀’로,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은 ‘왕권’으
로 번역하였다.

5.15. 스가랴 10장 11절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
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앓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חֹל)
이 없어지리라.”

「구역」, 「표준새번역」 그리고 「개역개정판」은 ‘홀’로, 「공동번역」은 ‘국
권’으로 번역하였다.

5.16.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πάβδος)은 공평한 홀(πάβδος)이니이다.”

「공동번역」은 두 곳 모두 ‘지팡이’로, 「표준새번역」은 ‘막대기’로, 「개역」과 「개역개정판」은 ‘홀’로 번역하였다. 또한 이 구절을 1887년에 로스 팀이 번역한 우리말 최초의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는 ‘권세’라고 번역하였고, 1900년에 출판된 「신약전서」는 권력으로서 사람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힘, 또는 권력 있는 정치상 중요한 지위 또는 신분을 뜻하는 ‘권병(權柄)’으로 번역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11년 「구역」은 이것을 ‘홀,’ ‘법을 세우는 자,’ ‘권병’으로 번역하였다. ‘scepter’가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 그 뜻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은 번역자의 몫일 것이다. 그래서 번역은 하나의 창조적인 예술이다. 1911년 당시도, 성서 번역자들이 문장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홀’이라는 용어를 잘못 선택하였다. 그들이 왜 ‘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다.

1977년 「공동번역」은 ‘홀,’ ‘왕의 지팡이,’ ‘왕권,’ ‘지휘봉,’ ‘왕장,’ ‘지팡이,’ ‘왕권,’ ‘국권’으로 번역하였다. 공동번역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문맥의 의미에 맞게 해석하려는 노력은 보였으나 같은 내용을 서로 달리 표현하는 한계를 보였다. ‘왕의 지팡이’이나 ‘왕장’은 똑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지팡이’는 우리 고유어이고 ‘장(杖)’은 한자어이다. 또한 시편 110편 2절을 ‘지팡이’로 번역하여 ‘scepter’가 지니고 있는 그 독특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scepter’가 구별되지 않았다. ‘지휘봉’이라는 번역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것이지만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 단어로는 ‘scepter’가 지니고 있는 왕권 또는 권력의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1993년 「표준새번역」은 ‘홀,’ ‘임금의 지휘봉,’ ‘왕권,’ ‘막대기’로 번역하였다. 「표준새번역」은 독자들에게 그 의미를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단어 선택에 있어 적절치 못하였다. ‘막대기’라는 단어는 ‘scepter’의 의미를 너무 비하시킨 듯하다. 우리 한국적 사고에서 막대기는 너무나 흔한 것으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권위, 위엄, 존엄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⁵¹⁾ 또한 1997년 「개역개정판」은 「개역」과 마찬가지로

51) 성서에는 지팡이와 비슷한 의미로 ‘막대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성서는 이들 의미에 대해서 상세히 구분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23:4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에서 ‘막대기’는 히브리어 ‘מִשְׁבָּט’이다. ‘מִשְׁבָּט’

지로 모두 ‘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scepter’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중국 성서를 살펴보자. 왜냐하면 우리 나라와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문화권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이해를 위해서 중국의 문화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993년 홍콩성서공회에서 펴낸 신구약전서(新舊約全書)에는 창세기 49장 10절, 민수기 21장 18절, 이사야 14장 5절에서는 ‘규(圭)’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국권(國權),’⁵²⁾ ‘장(杖),’⁵³⁾ ‘장권(掌權),’⁵⁴⁾ ‘권병(權柄)’⁵⁵⁾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912년 상해대미국성경회(上海大美國聖經會)에서 펴낸 「구신약전서(舊新約聖經)」는 창세기 49장 10절, 민수기 21장 18절에서는 ‘규(圭)’로 에스겔 19장 11절,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규(圭)’ 자와 동자인 ‘규(圭)’ 자가 원문의 의미라고 주석을 달았다. 중국어의 「신구약전서」도 문장에 따라 적절하게 ‘scepter’의 의미를 번역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scepter’의 의미가 ‘규(圭 혹은 珪)’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6. 왕의 지팡이

인류 최초의 문자를 가진 수메르 문화권에서도 사회적 신분 질서가 엄연히 존재했으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었다. 당시의 사회적 신분 질서는 다음과 같다.

“대사제권(nam-en)과 대여사제권(nam-lagar)은 제의권 중에 제일 높은 권한이다. 수메르 사회에 중요한 백 개에 달하는 ‘제의권’의 목록이 ‘엔키와 인안나’의 신화에 기록되었는데 그 목록의 시작이

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scepter’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의 지팡이(מַטְּעָן)와 막대기(מַטֵּה)’에서 이 두 단어가 서로 별개의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지팡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두 단어를 거듭 나열했는지, 그리고 막대기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영어 성서는 어순이 ‘주의 막대기(rod)와 지팡이(staff)’이다. 「공동번역」은 이 어순에 따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번역했다.

52) 시45:6, 히1:8.

53) 시45:6, 108:8, 111:2; 겔19:11, 19:14, 21:10,21:13. ‘scepter’를 ‘장(杖)’으로 번역한 것은 일반 지팡이인 ‘장(杖)’과 구별되지 않는다.

54) 암1:8.

55) 숙10:11.

바로 nam-en과 nam-lagar이다. 그 순서는 ‘대사제권, 대여사제권, 신권(神權: 사람을 신으로 부를 수 있는 권한), 고귀한 왕관, 왕좌, 지팡이, 작대기, 잣대와 측량줄’ 등으로 이어진다.”⁵⁶⁾

종교적인 권위를 지닌 자들이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보다 신분 질서가 높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6번째로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지팡이는 특정의 사람들이 - 사제권이나 왕권을 가진 자 또는 제일 연장자 - 갖는 것으로 권위나 힘을 상징한다.

또한 지팡이는 신비스러운 힘을 지니고 있다. 모세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기도 하며(출7:10),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며(출17:6), 아론의 지팡이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민17:8). 전령의 신, 나그네의 신인 헤르메스와 메르큐리우스의 지팡이는 모든 것을 잠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팡이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지녀야 했고(출12:11), 주신(酒神) 박쿠스 경배에도 지녀야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왕이나 신권을 가진 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구분하다.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최고의 권위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scepter’라고 명명하였다. 서양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신은 제우스, 유피테르이다. 이들은 ‘scepter’를 가지고 있다.⁵⁷⁾ 또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살펴보면 지상의 최고 통치권자인 아가멤논,⁵⁸⁾ 오디세우스,⁵⁹⁾ 헥토르,⁶⁰⁾ 메넬라오스⁶¹⁾ 등은

56) G. Farber-Flügge, “Der Mythos ‘Inanna und Enki,’” *Studia pohl* 10 Rome(1973), 조철수, 「수메르 신화 I」(서울: 서해문집, 1996), 108-9쪽, 재인용. 오늘날에도 지팡이는 권력을 상징한다. 남아 공화국의 닐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의 후계자로 타보 음베키를 지명하면서 권력을 상징하는 검은 지팡이 - 우리 나라의 단장(短杖)과 흡사한 - 를 수여하였다. 지팡이와 다른 작대기는 수메르 문화에서 지팡이 다음으로 그 중요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메르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의 하나는 악한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저승에서 올라오는 악한 귀신들을 무서워했다(조철수, 「수메르 신화 I」, 12-13쪽). 악한 귀신을 내쫓기 위해 그들은 작대기(manu)를 이용한다(137쪽). 길가메쉬는 엔키두에게 저승 여행시 작대기를 들지 말라고 명한다(165쪽). 그러나 엔키두는 길가메쉬의 말을 듣지 않고 손에 작대기를 들었다. 그러자 유령들이 모여들었다(166쪽).” 즉 지상에서 작대기로 쫓겨난 악한 귀신들이 복수하기 위해 덤벼들었다.

57) Thomas Bulfinch, *The Age of Fable*, 최혁순 옮김, 「그리스·로마신화」(서울: 범우사, 1995), 360쪽; Publius Ovidius, *Metamorphoses*, 이윤기 옮김, 「변신이야기: 神들의 전성시대」(서울: 민음사, 1994), 23쪽. 여기서는 ‘홀’이라고 번역되었다. 다른 신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

‘scepter’를 가지고 있다. ‘scepter’를 가졌다는 것은 지상의 권력을 가진 것을 뜻한다.

“제우스께서는 당신에게 굉장한 부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다스릴 영예의 왕홀(scepter)을 주셨습니다. --- 진실로 왕홀(scepter)은 지상의 권력입니다.”⁶²⁾

‘scepter’는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신 제우스와 유피테르가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제우스가 허락한 통치자들이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scepter’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scepter’를 직역으로 ‘왕의 지팡이’로 이해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왕의 지팡이’라는 용어는 마치 우리 나라에서도 왕이 지팡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 그렇게 암시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왕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왕의 지팡이에 대한 특별한 명칭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cepter’를 ‘왕의 지팡이’ 또는 ‘왕장’이니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맥락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유목 생활을 하는 국가들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지팡이를 사용한 것 같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지팡이를 들고 나갔으며(삼상17:40),⁶³⁾ 예수는 30세 전후의 그의 제자들에게 여행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명한다(막6:8).⁶⁴⁾ 그리고 희랍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한 「새」에서는 지팡이가 유행처럼

58) Homer, *Ilias*, 유영 옮김, 호메로스, 「일리아스」(서울: 범우사, 1996), 33쪽. 여기에서도 ‘scepter’를 ‘홀’로 번역하였다. 우리가 읽는 번역서에서 ‘홀’은 영어의 ‘scepter’를 번역한 것으로 독자들은 이해하면 된다.

59) 호메로스, 「일리아스」, 38쪽.

60) 호메로스, 「일리아스」, 179쪽.

61) 호메로스, 「일리아스」, 405쪽.

62) 호메로스, 「일리아스」, 151쪽.

63) 「표준새번역」은 ‘목동의 지팡이’로 「개역」과 「공동번역」은 ‘막대기’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지팡이’가 적절하다. 히브리어로는 지팡이를 뜻하는 מִקְלָה 단어가 쓰였다. 요셉푸스는 *Jewish Antiquities*, VI, 184-189에서 삼상 17:40절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다윗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를 뜻하는 ‘βακτηρια’ 단어를 사용한다.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는 *Jewish Antiquities*, III, 31-39, *Jewish Antiquities*, IV, 62-66을 보라.

64) Q 자료인 마10:10, 눅9:3에서는 상반된 보도 즉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보도한다. 이 논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제쳐 두고서라도, 지팡이가 제자들에게 중요하였거나 또는 당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용되었음을 보도한다.

“공중에 이처럼 훌륭한 나라를 세우신 당신을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 이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절식(節食)을 하고,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하면서 스파르타에서 만든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요.”⁶⁵⁾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국가들은 지팡이가 나이의 구분 없이 두루 사용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나 중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예기(禮記)」의 왕제(王制) 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五十杖於家 六十杖於鄉 七十杖於國 八十杖於朝 九十者 天子欲有問焉 則就其室 以珍從. 50세 이상인 자는 집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60세 이상의 자는 향당(鄉黨)안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70세 이상인 자는 국도 안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80세 이상의 자는 조정(朝廷) 안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90세 이상의 자는 천자도 부르지 않고 물을 것이 있으면 몸소 그 집으로 나가는데 이 때는 진미를 가지고 간다.”⁶⁶⁾

우리 나라에서 지팡이를 들 수 있는 나이는 50세가 되어야 하고, 60세 이상이어야 지팡이를 들고 겨우 바깥을 출입할 수 있다.⁶⁷⁾ 즉 우리 나라의 개념으로는 나이든 자들만 지닐 수 있는 것이 지팡이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문헌에서 왕이 지팡이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왕은 신하에게 최고의 선물로 지팡이를 선사한다. 김유신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자 문무대왕은 김유신에게 하사품을 선사한다.

65) 아리스토파네스, “새,” 최현역, 「그리스·로마 희곡선」(서울: 범우사, 1989), 128쪽.

66) 「예기(禮記)」, 131쪽.

67) 집안에 상(喪)을 당하면 어린아이도 상장(喪杖)을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 제1권 기이1편의 탈해왕(脫解王)에서 탈해왕이 ‘어린 시절에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데리고 토함산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의 지팡이는 어린 탈해왕의 신성성과 권위를 상징한 것이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팡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왕이 지팡이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於是授太太舒發翰之職，食邑五百戶，仍賜輿杖，上殿不趨，基諸寮佐各事位一級。 이에 태대서발한(太太舒發翰:太太角干)의 직위(職位)를 제수하고 식읍(食邑) 500호(戶)로 하며, 이에 수레(乘物)와 지팡이(杖)를 하사(下賜)하고 전상(殿上)에 오름에 있어서도 추창(趨蹌:조심해서 빨리 걷는 것)하지 않으며 그의 속관(屬官:寮佐)들에게도 각각 위계(位階) 한 급(級)씩을 더 주었다.”⁶⁸⁾

문무대왕이 김유신에게 선사한 하사품에는 지팡이가 들어 있다. 이것은 왕이 신하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지팡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즉 왕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신하에게 선사한다. 물론 이때 김유신의 나이는 70이 넘었다. 우리 나라에서 지팡이는 노인들이나⁶⁹⁾ 특히 불가의 승려들이 사용해 왔다. 불가의 승려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석장(錫杖)이라고 부른다.⁷⁰⁾ 이것은 머리 부분을 탐모양으로 만들어 여기에 작은 고리를 여러개 달아 움직이면 고리와 고리가 부딪혀 소리가 나게 되었으며, 지장보살을 상징하는 지물이다.⁷¹⁾

서양에서 지팡이의 일종인 ‘scepter’는 종교적으로 최고의 신 제우스나 유피테르가 사용하며, 또한 정치적으로 최고의 통치권자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scepter’는 종교적, 정치적인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왕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불가의 승려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지팡이가 종교적인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와 서양 사이의 지팡이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이다. ‘scepter’를 ‘왕의 지팡이’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68) 김부식, 「삼국사기」(下), 이병도 역, 371-372쪽. 「삼국사기」 권 제6편에 의하면 ‘문무왕(文武王) 4년 정월에 김유신이 퇴로(退老:致仕)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궤(几)와 장(杖)은 다 노인의 소용으로, 퇴로(退老) 불허시(不許時)에 임금이 주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지팡이는 왕이 신하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삼국사기」(上), 이병도 역, 148쪽을 참조.

69) 우리 나라에서는 효의 상징으로 명아주로 만든 청려장(靑藜杖)이 있다. 이를 짚으면 병이 걸리지 않아 장수한다고 한다. 「한국문화상징사전」(서울:동아출판사, 1992), 547-548쪽을 참조.

70) 석장의 어원은 「삼국유사」 제4권 의해 제5양지사석(良志使錫)에 실려 있다. 그리고 불가의 중들이 지팡이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삼국유사」, 이민수가 역, 243, 267, 343, 383, 384, 457, 460, 488쪽을 참조.

71) 이지수, 「지물」,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제21권, 250쪽.

7. 맺는 말

성서는 기독교인들의 경전으로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성사에 큰 영향을 준 책이다. 그런 만큼, 성서의 번역 작업은 엄밀하고 정확하게 수행될 것을 요청받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 초창기의 성서 번역에서 ‘scepter’에 해당되는 우리말 대응어를 그 상징적 의미에 따라 ‘권세’ 혹은 ‘권병’이라고 잘 번역하였으나, 1911년 「구역」부터는 그 일부를 ‘홀(笏)’로 번역하였다. 그 결과 우리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들 대다수는 ‘scepter’를 ‘홀’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圭)’라는 말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scepter’를 ‘홀’로 이해하는 데 있어 제일 큰 문제점은 사회적 신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다. 서양에서 ‘scepter’는 종교적, 정치적 최고의 권위자가 사용하는 지팡이의 명칭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홀’은 1-9품의 신하들이 왕을 알현할 때 쥐는 패의 명칭이다. 우리 나라에서 ‘scepter’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홀’이 아니라 ‘규’이다. 왕은 제례 때 손에 ‘규’를 든다. 그래서 ‘scepter’는 사회적 신분이 일치하는 왕의 ‘규’로 번역되어야 하고,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신분제도가 엄격한 고대사회에서 의복의 색깔이나 그 사용하는 명칭은 엄격히 구분되었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법규와 같은 것이었다. 사회적 신분 질서를 무시하고 용어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다. 중국어 성서가 ‘scepter’를 ‘규’로 번역한 것은 우리의 성서 번역보다는 더 정확했다.

서양에서 ‘scepter’는 종교적, 정치적인 면에 있어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지팡이는 종교적인 측면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scepter’를 ‘왕의 지팡이’로 해석하는 것은 지팡이에 대한 서양과 우리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 왕조 시대에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왕이었다. 왕은 ‘규’를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scepter’를 왕이 사용한 ‘규’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 현실에 더 적합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영어의 ‘scepter’의 의미가 우리의 ‘홀(笏)’이 아닌 ‘규(圭)’가 옳다는 것을 감히 주장해 본다. 우리말로 풀이된 영, 독, 불 등 외국어 사전들 역시 ‘scepter’를 ‘홀(笏)’이 아닌 ‘규(圭)’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